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대대적 구조조정

도, 대선 공약 반영 총력전

도, 계획 발표... 성장지원 6곳·조정보완 6곳·취지불합 2곳 분류 추진... 166개→107개로 조정

전북도가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생태관광 사업의 사업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3월중 실시한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관례적인 사업비 균등 지원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과감히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시군별 사업 추진상황, 생태관광 취지 부합성 등이 서로 상이해 유형별 구분 관리와 세부사업 조정 필요성이 도출

됐다.

이에 따라 시군 생태관광지를 성장 지원, 조정보완, 취지불합 3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성장지원지역'은 명확한 컨셉, 생태관광 이해와 사업추진 의지 등을 바탕으로 조기 성공모델 창출 가능한 지역으로, 장수·고창·완주·군산·남원·임실 등 6개 시군 생태관광지가 해당하고, 이들 지역에는 조기에 사업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조정보완지역'은 생태관광 취지에 맞도록 사업 조정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진안·정읍·무주·순창·익산·김제 등 6개 시군 생태관광지이며, 올 상반기 중 논의를 거쳐 보완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지불합지역'은 인위적 조성이나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딘 지역으로 부안·전주 등 2개 시군 생태관광지가 해당하며, 올해까지만 사업을 지원 후 종결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인위적 조성을 최소화하고, 광범위한 사업구간을 축소하며, 시군내 타사업과의 중복사업을 배제하는 등 생태관광 취지에 맞도록 세부 사업을 조정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6개 사업을 107개 사업으로 대폭 조정했고 향후 추가적인 전문가 컨설팅 및 시군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의 내용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은 당초 시군별 1개 정도 대표 생태관광지를 갖출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 추진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사업 시행 후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시군이 추진 의지,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도 등의 차이로 사업 추진 속도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성공모델 조기 가시화를 위해 '일률적인 균등' 지원에서 '유형별 차등' 지원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업명칭도 시군별 생태관광지를 1개씩 모두 조성해야 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송하진 지사, 국회 찾아 핵심공약 반영 적극 요청

전북도가 제19대 대선 지역공약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이번주 중에 정당 정책위의장 면담 등을 통해 전북공약 정당별 반영을 위한 노력을 집중 전개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각 당의 정책위원회는 현재 지역별 공약을 마무리 중이며, 확정된 대선 후보자 캠프와 협의와 조율을 거쳐 선거운동 시작 이전인 이번 주 중에 공약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먼저, 송하진 지사는 12일 직접 국회를 찾아 주요 정당별 정책위의장,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핵심공약 위주로 공약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후보자들의 전북공약 발표 및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원된 내용이 이번 대선공약에 꼭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발표(발언)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전북 뭉 찾기' 차원에서 적극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전북발전 구상 TF팀'을 구성·운영을 통해 8개 분야 48개 과제를 발굴해 주요정당과 대선

예비후보자의 전북 방문 시 자료제공 및 설명을 해왔다.

공약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정당의 지역·도당 대선공약 기확단 회의,세미나 등에 참석해 발굴 공약을 설명하고, 중앙당 정책위를 방문해 정책실장 등 공약작성 관계자에게 세부적인 설명과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서울사무소 연락관의 국회 상주활동을 통해 정당별 공약 반영상황의 긴밀한 동향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대응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발굴된 공약의 반영 활동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당위성, 공감대 확보를 위해 핵심분야별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내용 고도화를 위한 용역 13건과, 전북연 연구과제 5건, 세부보고서 22건을 작성하고, 내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 25건은 부처별 설명 등을 통해 공약반영에 관계없이 국가사업화 하는 등 이번 대선공약 발굴과제가 전북도 미래발전을 앞당기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도-조달청, 지역 벤처·창업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와 조달청은 12일 도청에서 지역벤처·창업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해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그동안 벤처나라 등록을 위해서는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조달청과 업무협약 체결로 전북도에서는 기존 벤처·창업기업에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추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벤처·창업기업들은 전북도의 지원정책인 창업 쉼나무 사업과 지원, 4050 행복창업뿐만 아니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및 인증마크 부여, 전국 공공기관들의 우선구매 권고대상이 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지원으로 벤처나라에 제품이 등록된 기업은 정부조달 입찰계약에 필수적인 절차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전시회 및 기획홍보 등 판촉 활동 지원을 받는 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협약이 도내 벤처·창업기업의 판로개척, 매출증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도와 조달청이 소통·협력해 상호간에 한층 더 발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와 조달청은 12일 도청에서 지역벤처·창업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해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일재 부지사, 국가예산 확보 고군분투

국토교통예산협의회 참석·3개 부처 방문, 핵심 14개 사업 건의

전북도는 2018년 국가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지휘부가 연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7개 부처를 상대로 방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12일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국토교통 예산협의회 참석과 3개 부처를 잇따라 방문하고 도정현안 및 국가예산

핵심 14개 사업에 대해 중점 설명·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 국토부 철도건설과장, 해수부 항만국장, 유통정책과장, 문체부 전성오 재정담당관을 차례로 만나 사업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한 국토교통예산협의회에 참석해 호남고속도로 중 '삼례~김제 구간 6차선 확장'과, 울 하반기 공사착수 예정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의 본격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4월말~5월에도 2주에 한번 이상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해 국가사업 반영 필요성, 우리 지역의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제2기 지방행정연수원 서포터즈 발대

지방행정연수원은 12일 참신하고 독창적인 대학생들의 시선을 통해 교육현장을 생동감있게 전달할 '제2기 지방행정연수원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포터즈는 지난 3월 15일에서 29일까지 2주간 공직문화와 홍보활동에 관심있는 전북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연수원의 역할 및 기능에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페이스북 등 SNS 활용능력이 우수한 15명을 선발·위촉했다.

선발된 서포터즈 단원들은 연수원

의 다양한 소식들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하고, 연수원 소식지 제작참여 등 1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연수원 직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합동 봉사활동, 교육과정 운영 일일체험, 각종 중앙부처 행사에 참여하는 등 간접적인 공직체험 기회도 얻게 된다.

배진환 연수원장은 "앞으로 연수원과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서포터즈단의 활동들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집단급식소 용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조사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11월까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20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식품제조용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저온이 유지되는 지하수에서 장기간 생존(30~40일)이 가능해 집단급식시설에서 오염된 지

하수를 사용할 경우 구토, 복통, 설사 등 급성 위장관염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대규모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 방법으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 생활화, 식품은 내부 중심온도 85℃에서 1분이상 가열조리, 물은 끓여 마시기, 조리기는 철저히 세척·소독해 사용, 설사 증상은 식품조리 안하기, 어패류는 가열해 섭취하기 등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